

# Interview

## 수삼 전용 '숨쉬는 포장재' 개발 수삼 크기별 다양하게 맞춤형 소포장 가능



박철웅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

우리나라 농산물 중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지닌 고려인삼은 최근 국내·외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와 홍삼에 대한 인기에 힘입어, 국내시장 규모가 1조원대로 성장,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수삼은 수확 후에 흠이 묻은 채로 바구니 등에 담아 소비시장에서 유통돼 수삼의 선도유지 측면에서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상황 아래 농촌진흥청 인삼약초가공팀이 “국내 수삼 시장에서의 과학적인 유통”을 이룬다는 기치 아래, 수확 후 선도유지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기호도를 충족시키고자 수삼 유통시 신선하게 오래 보관이 가능한 ‘수삼 전용 숨쉬는 포장재’를 개발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박철웅 부장에게 수삼 전용 숨쉬는 포장재 개발 배경과 특징에 대해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박철웅 부장은 그동안 수삼 유통현장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고 전한다. 먼저 수확 후에 수삼이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수분 증발이 없어야 하고 부패율을 줄여야 하는데 기존의 유통되는 바구니 등은 이

와 같은 신선도 유지와는 무관하게 제작되어 있었다는 것. 또한 수삼 구매 후 또는 선물로 받은 후에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흙이 묻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바로 먹지 못한다는 데도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 외에도 수삼을 소량 구입하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많았음에도 대형할인 마트의 수삼 매장에 가보면 삼계탕용을 제외하고 4년근 이상은 거의 1채 단위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채는 750g이며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0~20뿌리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어, 핵가족 또는 1인 세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는 물론 가격면에서도 소비자들이 다른 농산물에 비하여 손쉽게 지갑을 열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고 전한다.

박철웅 부장은 “이와 같은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수확된 수삼의 품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수삼 전용 포장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지난해부터 지역 인삼농협 관계자들의 요구와 아이디어에 힘입어 새로운 수삼 전용 포장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수삼전용 숨쉬는 포장재”는 개발된 내포장재가 수분 손실에서 기존 용기에 비해 1.6배의 효과를 지닌다. 신선한 수삼의 품질 척도는 수확 후 마르지 않고 내부의 수분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데 플라스틱 재질에 다공성의 특수 기능성 물질을 첨가, 보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기존 수삼 포장 용기는 상온에서 21일 경과 후 16.5%의 수분 손실을 가져왔으나 개발된 수삼 전용 포장용기는 10.3%의 수분 손실만 가져

와서 1.6배의 수분 유지 효과를 거뒀다. 두 번째로 신선한 수삼의 품질 척도는 수확후 부패가 적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수삼이 외부 공기에 노출이 되지 않고도 원활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다공성의 특수 돌가루를 플라스틱에 코팅해 내부의 기체를 밖으로 효과적으로 배출 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서 부패율을 줄였다. 기존 수삼 포장 용기는 상온에서 21일 경과 후 17%의 부패율을 가져왔으나 개발된 수삼 전용 포장용기는 8%의 부패율만 나타내 2.1배의 부패 억제 효과를 거뒀다. 또한 단독세대나 핵가족 시대를 반영, 크기를 다양화하여 4~6년근 수삼을 100~750g까지 크기별로 다양해 포장할 수 있도록 고안하여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 맞춤형 구매가 가능하도록 불편을 해소했다.

박 부장은 “개발된 ‘수삼 전용 숨쉬는 포장재’는 관련 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전국 수삼 유통시장에 조기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인삼의 세계 최고 명품화를 통해 인삼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연구기술 개발과 함께 각종 전략의 입체적 수립과 빈틈없는 추진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는 박철웅 부장. 그는 이번 ‘수삼 전용 숨쉬는 포장재’ 개발은 국내 인삼 유통 시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을 상대로한 수출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인삼 생산자 및 유통에 종사자들은 물론 인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ko**